

첫돌 맞은 분당 책 테마파크 다양한 문화공연 접목해 '책과 가까이'

지난해 4월 '독서테마공간'을 표방하며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책 테마파크' (성남시 율동공원 내)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곳은 기존의 정적인 독서 공간을 탈피, 살아 움직이는 책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만 2천여 권의 장서를 열람할 수 있는 북 카페와 각종 문화공연이 올려지는 야외무대 '하늘의 책' '시간의 책' '물의 책' 등 독특한 공간을 마련하고 책과 연관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곳을 다녀간 관람객이 10만여 명에 이르면서 성남시민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인접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기획부 박동기 차장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테마파크 내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 자연스럽게 책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책 테마파크는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내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리적 약점이 있지만 넓은 공간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책과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란 슬로건 아래 지역 도서관과 독서동호회 모임과의 연계 활동으로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책 테마파크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종이문화재단, 대한북아트협회의 후원을 받아 '성남국제북아트페어 2007'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기획부 박동기 차장은 "북 아트전과 세미나, 책 놀이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속에 책을 주제로 한 책테마파크를 홍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50평 규모의 책 테마파크 전시장에서 해외 5개국 여섯 작가와 국내 대표 작가 100인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야외행사장에서는 활판인쇄, 통가죽 다이어리 만들기, 어린이 북아트 워크샵, 수제 종이 만들기 등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한민**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성남문화재단 책 테마파크

